

「중한 인명에 반영된 문화적 심리」

중국청도해양대학 이 용 해

1. 들어가는 말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는 쌍방향이면서 다방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와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지만 진정한 상호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토대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중국인과 한국인은 인종적으로 모두 황인종의 같은 피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방인들의 눈에 비쳐진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성은 극히 적다. 라이샤워 페어뱅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도문화(高度文化)는 천년이상 동안이나 중국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상 중국 문화와 동일하다고 까지 보여진다... 특히 한국은 중국 문화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닮았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조차도 중국적인 형(形)을 따르고 있다. 한국의 지명의 대부분은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 한자로 적어놓으면 중국의 지명과 구별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명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인명과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성이 한 자이고 이름이 두 자로 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 밖에도 풍속문화나 연중 행사 같은 면에서도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와 대동소이하며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명절까지도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물론 많은 면에서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와 닮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그 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다. 소가 풀을 먹고 자라지만 그 고기가 식물성이 아닌 것처럼. 한반도가 일찍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고는 하지만 결코 중국의 문화와 같은 것은 아니다.

흔히 문화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중국 문화권, 또는 유교(儒敎)문화권이라 하여 그 동질성을 강조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느 민족이든지 똑 같게 보인다. 이렇듯 똑 같게 보이는 이유는 인류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질관념이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본디 지니고 있는 속성이 서로 동일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원질관념은 각 민족의 서로 다른 역사, 생활환경으로 하여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중국인과 한국인은 본디의 원질관념 때문에도 비슷하겠지만 또 크게 볼 때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여전히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 예컨대 한국인들이 부모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한국인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살아 있다. 비록 겉으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절차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른 유교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심층 심리는 중국인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유교에서는 제(祭)를 일컬어 "제즉진미진지효(祭則盡未盡之孝)라 하여 부모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孝)를 다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제사란 어디까지나 생활규범의 일종이요, 그 연장된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이 어딘가에 있어서 항상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나의 생활의 길흉화복을 직접 주관하는 신격(神格)으로 인식한다. 그러기에 부모의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입는다는 일종의 신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음식도 (적어도 관념적으로) 신(神)이 직접 내려와서 잡수신다고 생각한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명에 반영된 문화적 심리도 얼핏 보면 대단히 유사하지만 이름을 지을 때의 심층 심리는 여전히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2. 한자문화권에서의 성씨이름문화

중화인들의 이름은 한자와 관련하여 독특한 성씨이름(姓氏名字)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성씨이름문화는 사회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다음에 생긴 것이고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성씨이름문화를 형성하였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마다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반 백성들은 간혹 이름은 있되 성씨 및 자는 없었다. 성씨나 자는 일정한 신분을 갖춘 사람만 소유하고 있었다. 성씨는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가족, 직업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한자로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가족 및 직업 등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姓)은 개인이 태어난 가족을 나타내는 부호라고 할 수 있다. 한자 조자법(造字法)에서 일컫는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기능을 보아 성(姓)은 회의자(會意字)로서 "계집 여(女)"와 "날 생(生)"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뜻은 여자가 낳은 아이이고 형성(形聲)기능으로 보아 소리는 "생(生)"으로 읽게 된 것이다. 먼 옛날, 인류는 모계씨족사회를 거쳤는바 그 때의 혼인은 群婚制이기에 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반고(班固)의 <白虎通·姓名>에 쓰인 것처럼 "먼 옛날엔 삼강육기가 없기에 백성들은 그 어미만 알고 아버지는 몰랐다(古之時, 未有三綱六紀, 民人但知其母, 不知其父)". 여기서 보다시피 성(姓)은 모계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성이 모계사회의 산물이라 하여 모든 성이 다 모계사회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姓도 발전하였다. 부계사회가 모계사회를 대체한 다음 자손이 더욱

변성해지면서 한 사람의 자식일지라도 여러 개 성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國語·晉語四>에 黃帝의 아들이 25 명인데 성을 얻은 자식 14 명이 12 개 姓을 썼고 황제와 동성은 2 명뿐이었다고 했다. 지금 보아서 분명히 모계사회에 형성된 한자 성으로는 "계집 女"변이 붙은 姬(黃帝가 곧 姬성임), 姜, 姚 등이 있고 기타 "계집 女"변을 뺀 성은 지금 별로 찾아볼 수 없다.

氏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성이 모계사회 산물이라면 氏는 부계사회산물인바 인류사회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발전한 다음 혼인제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자손도 더욱 변성해지어 그 자식들이 독립한 다음 서로 구별되는 그 어떤 부호를 가져야 했는데 氏는 바로 이런 수요에 부응하여 나타났다. 계급사회에서 氏는 신분의 고저귀천(高低貴賤)을 나타내는 부호이기도 하여 王子(왕의 아들), 王孫(왕의 손자), 公子(제후의 아들), 公孫(제후의 손자, 공자의 아들)이 氏로 사용되었고 封邑이 있는 사람은 封邑 지명을,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직을, 어떤 직업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나 기능직을 氏로 삼았다. 한자의 구조로 볼 때 한족들의 일부 성씨가 일부 관직과 기능직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祝씨는 제사를 맡아보는 祝史라는 벼슬에서 왔는데 그 자손들은 祝을 氏로 삼았던 것이며 史氏는 고대의 史官 벼슬에서 왔다. 후세에 와서 빈번한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氏로 표현했던 고저귀천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姓氏合一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기와 秦에 의한 전국의 통일을 거치면서 옛날 小國들의 王子(왕의 아들), 王孫(왕의 손자), 公子(제후의 아들), 公孫(제후의 손자, 공자의 아들)이나 수많은 大夫의 후손들, 그리고 귀족들이 전부 秦나라의 백성으로 되어 姓과 氏로 인한 신분의 귀천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에 보게 되는 많은 한족의 성씨들은 고대의 성에서 왔다하기 보다 氏에서 온 것이 더 많다는 연구가 있으며 오늘에 와서 姓과 氏는 더는 구별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태어난 가족을 나타내는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성씨는 또한 그 발전행정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옛날에 나라 이름, 封邑 또는 살고있는 고장의 지명과 강의 이름에서 따온 성씨들을 보면 그 성씨에 "고을 邑", "언덕 阜", "물 水"자 변을 달고 있다. 그러나 그 후의 변화 과정에서 나라와 封邑을 나타내는 "邑"자를 단 일부 성씨들은 "고을 邑"를 떼어버리고 쓰는 경우가 있고 "물 水" 변을 단 성씨들 중의 일부도 "三水" 변을 떼어버리고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언덕 阜"를 썼던 성씨들은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예컨대 鄭, 鄧, 鄒, 郎, 穰(穰), 郭, 邵 등은 나라 이름이나 封邑을 성씨로 하여 지금까지 변함 없이 그대로 쓰여져 오고 있고 朱, 曾, 于 등 姓은 뒤에 붙어있던 "고을 邑"자를 떼어버리고 쓰고 있다. 그리고 潘은 "물 水"자 변을 그대로 쓰고 있으나 冪나 金, 齊 등 성씨는 앞에 딸린 "물 水"자 변을 떼어버리고 쓰고 있다. "언덕 阜"를 쓴 성씨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陳, 阮, 陶 등 성씨가 그러하다.

중국의 일부 성씨는 역사 발전행정에서 때로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로에 의해, 때로는 임금의 하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고쳐진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일부의 성씨들은 주동적으로 고쳐지기도 하였다. 즉 중국 소수민족의 많은 성씨들은 漢文化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동적으로 한족 성씨로 고치면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서는 임금이 의해 하사받은 장(張)씨 성과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 성을 바꾼 이(李)씨 성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장(張)’씨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씨 중의 하나이다. 중국말에 "張三李四(흔히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 "張冠李戴(갑을 을로 착각하다)", "張公吃酒李公醉(장공이 술을 먹고 이공이 취하다)", "張家長李家短(뒤공론을 하다)" 와 같은 말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장씨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역사와 관계된다.

"중화 제일 성(中華第一姓)"으로 불려워 온 장씨 성은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화의 시조 황제에게 소호(少昊)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호(號)를 청양(靑陽)이라 하였다. 소호의 다섯째 아들은 이름을 휘라고 불렀는데 아주 지혜롭고 용감하였다. 그는 사냥할 때 언제나 앞장에 나섰으므로 족인(族人)들의 존중을 받았다. 먼 옛날에 사냥도구는 돌멩이 아니면 몽둥이가 고작이었다. 후에 사람들이 돌덩이로 도끼거나 낫을 만들어 새끼로 막대기에 동여놓았는데 그것이 선진도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높게 나는 날짐승이거나 빨리 뛰는 길짐승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짐승을 많이 잡아 족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동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휘(揮)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내리라고 작심하였다. 그는 매일 밤마다 남들이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혼자서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명상에 잠기곤 하였다. 어느 하루 밤 그는 하늘에 걸려 있는 "남도(藍圖)"를 보고 문뜩 한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다. 아홉 개의 작은 별로 구성된 호성(弧星)이 하나의 반호형(半弧形)과 하나의 직선형(直線形)으로 나타나면서 직선의 한쪽 끝이 멀리 서북 방향에 위치한 천랑성(天狼星)을 가리키고 있었다. 휘는 호성의 형태를 본 따서 중화대지에서 처음으로 되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냈다. 줌통은 나무를 구부려 만들고 활시위는 짐승의 힘줄로 만들었으며 화살은 돌멩이를 날카롭게 갈아서 만들었다. 활을 발명한 후부터는 수렵물이 훨씬 많아지고 사냥꾼들도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많이 안전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황제는 아주 기뻐하면서 손자 휘에게 궁정(弓正)이란 벼슬을 주고 활과 화살을 전문 제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장(張)이란 성을 하사하였다. <張>은 활과 가다란 화살이 결합된 글자이다. 이것이 임금이 성을 하사한 그 일례이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이 바로 이(李)씨 성이다. 이 이씨 성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상조(商朝)말년에 李徵이라고 부르는 관리가 있었는데 대 바른 그는 商紂王이 범행을 저질러 때마다 충언을 하였고 또 법관의 신분으로 주왕의 심복 한 사람을 처분한 이유로 주왕에게 비참하게 처형당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그의 아내는 세상에 태어난지 몇 달 안 되는 아들

利眞을 품에 안고 伊侯之墟에 도망가 숨어버렸다. 利眞 모자의 피난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고달팠다. 그들은 목이 마르면 개울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프면 산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달래었다. 이진이는 산 속에서 산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갔다. 후에 주왕의 통치가 뒤엎어지자 이진 모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木子", 즉 나무열매가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利眞이는 理씨 성을 李씨 성으로 바꾸었다. '李'자는 木자와 子자가 결합된 글자로서 나무의 열매로도 이해할 수 있고 나무 아래에서 있는 어린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을 바꾼 실례이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오랜 역사 발전과정에서 많은 민족이 융합되어 하나의 주체민족인 한족을 형성한데서 오늘날의 한족들의 성씨는 그 연원 가닥이 복잡하다. 거기에다 55 개의 기타 소수민족의 성씨를 합치면 중국의 성씨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 秦에 의한 중국의 통일 이후로의 2,000 여 년에 달하는 역사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성씨는 점차적으로 가족 출신과 신분귀천을 나타내던 본래의 함의가 없어졌고 同姓이 同祖인 개념도 없어지었다. 지금에 와서 성씨는 순수하게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집단식별부호로 쓰이게 되었다.

한국인의 성씨는 한자를 사용했고 또 형성과정도 중국의 성씨 형성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한국인의 성씨는 本貫을 따지며 그 연원 관계를 낱낱이 살피기에 중국의 성씨에 비해 형성과 유전 과정이 썩 더 명확하게 알려진다. 한국에서도 역사 발전과정에서 혹자는 살아남기 위해, 혹자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거나 높이기 위해 성을 고치거나 또는 성은 그대로 두고 본을 고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가장 전형적인 실례로는 고려가 망한 후 왕실 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王씨성에 삿갓을 씌워 叀씨로 변했거나 叀씨성에 두 點을 더 찍어 金씨로 변한 것이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각지의 호구대장이 불타버렸을 때 적지 않은 常民계층에서 신분을 중인 또는 양반으로 고쳤다. 이런 경우에는 성은 고치지 않고 본을 고치었다.

한국인들이 성과 본관에 중시를 돌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인들은 본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물론 중국도 일부 지체 높은 가문은 성씨에 본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은 본관이 없고 중국 사람들 자체도 본관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당조 때만 하여도 본관이 결코 사는 성과 본이 같으면 먼 옛날에 한집안이었던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성씨가 다르고 본이 같아도 그들 성씨가 발원지가 같은 곳이기에 역시 한집안이 된다고 한다.

성씨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확정된 집단식별부호인 만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성씨가 주어져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성씨를 따라야 하고 마음대로 성씨를 고칠 수 없다..

3.중한 인명에 반영된 문화적 심리

조상 대대로 전해 온 성씨가 우리의 혈통 증명서라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전용 명사로서의 이름은 일단 한번 지으면 일생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부모 된 입장에서는 막 태어날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려고 몇 날 밤을 뒤척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이름이 없고 나쁜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없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적어도 행복하게 잘 살라는 염원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격려 그리고 되도록 이름으로 하여 남으로부터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성(姓) 다음에 오는 이름에 담으려 애를 쓴다. 그리고 향렬자에 맞춰 음양오행을 따지고 가족들 이름자와 사주까지 살펴서 짓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에는 지칭의미 외 화용의미(話用意味), 미감의미(美感機能), 기원기능(祈願機能)도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만복(萬福)이라는 이름은 "일만"이라는 "만(萬)" 자에 "복(福)" "복(福)"자이니 복을 많이 받으라는 염원이 그 화용의미일 것이다. 학수(鶴壽)라는 이름은 수명이 천년(실제는 4, 50 년에 불과 함)이 된다는 "학(鶴)"자에 "목숨 수(壽)"자로 되었으니 천년을 살아라는 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옛날에는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내자식 광이었다. 종법(宗法)으로 이어져 가는 사회에서 다자다복(多子多福)이 인생의 기점이었고 조상에 대한 첫째가는 효도였다. 이로부터 성행된 것이 기자신앙(祈子信仰)이었다. 이러한 기자신앙으로부터 민간에는 별의별 주술적 습속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들을 낳은 산모의 속옷을 훔쳐다가 복부에 띠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는 등, 석불의 코를 떼어 가루 내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등, 아들 낳은 집 금줄을 훔쳐서 그 새끼로 밥을 지어먹으면 나들을 낳는다는 등, 어쨌든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아무 짓이라도 좋았다.

갓난애의 이름을 지어줌에 있어서도 주술적이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기다리다가 딸을 낳게 되면 유감이요, 서분이요, 분통이라 지어주고 두 번째 또 딸을 낳으면 말순이요 필녀요 하는 이름을 <선사>하였고 그 다음 또 딸을 낳게 되면 희남(希男), 후남(後男), 기남(祈男)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어 그 이름에 아들에 대한 욕망을 기탁하였다.

이름에 담긴 화용의미를 살펴보면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더 심장하다. 공자(孔子)는 산둥 지역의 노(魯)나라에서 태어났다. 노나라는 예로부터 생선요리가 유명했던 곳으로 <魯>라는 글자는 생선이 그릇 위에서 익고 있는 형태의 문자이다. 공자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누군가 잉어를 선물했는데 기분이 좋았던 공자는 아들 이름을 <리(鯉)잉어 리> 라고 지어주었다. 공자의 이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공자의 아버지 叔梁紇은 슬하에 딸 아홉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다. 그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아들 하나 더 낳기로 작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내와 같이 曲阜 동남쪽에 있는 尼丘山에 가서 天神에게 아들을 하사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던 와중에 뜻밖에 정말 아들을 또 하나 낳게 되었다. 이 아들은 니구산 천신이 하사해 준 아들이라고 생각한 숙양홀은 니구산의 '丘'자를 따서 이름을 지어주고 '尼'자를 字로 하였다. 공자는 남자 형제 가운데서 둘째이므로 '仲'자를 붙여 '仲尼'라고 불렀다. 이것이 공자의 이름에 대한 한 개 설이고 또 다른 한 개 설은 이러하다.

노나라에는 고대로부터 청춘남녀의 집단 미팅습속이 있었는데, 들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이를 야합이라고 불렀다. 어쨌든 이 난장판에서 공자의 어머니는 한 사내를 만났고 공자를 얻었다. 낳고 보니 머리가 심한 짱구인지라 이름을 울퉁불퉁한 언덕이라는 구(丘)자를 붙여주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전중서(錢鍾書)선생의 이름에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당시 중국에는 돌잡이 풍속이 있었는데 첫돌 날에 여러 가지 물건을 돌상에 차려놓고 돌쟁이에게 제 마음대로 물건을 잡게 한다. 그 잡은 것에 따라 돌쟁이의 천성과 직업이 결정된다고 한다. 전중서선생이 돌날에 맨 처음 잡은 것이 책이었는데 학자인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중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3.1. 중국인 인명

중국인 인명은 한어의 뜻 글의 특성을 유감없이 체현하고 있다. 중국인 인명에서는 성별, 출생시간, 지점, 명명자의 염원, 명명자의 문화수양 및 시대적 특성을 보아낼 수 있다. 이를테면 "좌력(左力-좌과역량)", "문혁(文革-문화대혁명)", 해방(解放), 홍위(紅衛)와 같은 이름들은 시대적 특성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의 성(姓)은 <女>와 <生>으로 구성되었는데 회의(會意)와 형성(形聲)이 결합된 글자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성은 모권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씨는 전국시대이후에 나타났다. 이 변화는 모계사회로부터 부계사회로의 과도를 상징한다. 후세에 와서 남자는 씨(氏)로 칭하고 여자는 성(姓)으로 칭하였는데 이는 일종 제도로써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존재하다가 점차 성과 씨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중국은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까지 줄곧 등급관념이 아주 심하였다. 동한 때부터 당나라 중기까지 성을 국성(國姓), 군성(郡姓), 주성(州姓), 현성(縣姓) 등으로 차등을 나누어 문벌제도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당나라 때 황제가 성이 이(李)씨였기에 이씨 성은 국성으로서 가장 존귀하였다. 송조 이후부터는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 점차적으로 문벌제도가 성씨등급을 대체하였다. 지금은 성씨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부호로 되어 귀천지분이 없게 되었다.

중국 사람들의 성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는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다. <중화성부(中華姓府)>의 통계에 따르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6363 개 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한 글자 성이 3730 개이고 복성(復姓)이 2498 개이며 세 글자 성이 127 개이고 네 글자 성이 6 개이며 다섯 글자 성이

두개이다. 성마다 그 유래가 있고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테면 제(齊), 노(魯), 송(宋), 위(衛) 등 네 개 성은 나라 이름을 성으로 하였고 하구(瑕丘), 묘(苗), 기사(旗思), 고당(高堂) 등은 지명으로 된 성이며 사마(史馬), 사도(史徒), 사구(史寇), 사공(史空) 등은 관명으로 된 성이고 왕(王), 공(公), 백(伯), 작(爵), 후(侯) 등 성은 작위를 따서 만든 성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名), 호(號), 시(諡)나 숫자를 성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을 그 유래에 따라 분류하면 아마 열 몇 가지는 실히 될 것이다. 중국 사람들의 성(주로 한족)은 그 수가 상당히 엄청나고 유래가 아주 복잡하다. 이것은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것과도 관계된다.

중국어의 작명(作名)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전형적인 실례로 <홍루몽>을 들 수 있다. <홍루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물들의 이름이 해음(諧音)과 관계된다. 예컨대 진사은(甄士隱)의 성 "진"은 참 진 "眞"과 음이 통하고 이름 "費"는 "廢"와 음이 같다. 이름과 성을 합치면 "眞廢(物)"가 된다. 진응가 진응가(眞應假)와 음이 같고 진보옥은(眞寶玉)와 음이 통한다. 《홍루몽》에 등장하는 인물가운데 <賈>자 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다. 예 하면 賈雨村(假語存), 賈敬(假敬), 賈政(假正), 賈寶玉(假寶玉) 등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해음과 관계된다.

둘째, 시구에서 유래되었다. 이를테면 林黛玉의 이름은 <題畫詩>의 "連光林黛結深翠"란 시구에서 유래되었다. 설보채, 원춘, 탐춘, 영춘, 상운 등 인물들의 이름도 모두 시구에서 유래되었다.

셋째, 직분과 관계된다. 이 부류의 이름은 그 태반이 시녀나 사환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름은 있으나 성이 없다. 가부(家府)에는 抱琴, 司棋, 侍書, 入畫 등 네 시녀가 있는데 그녀들의 이름을 합치면 <琴棋書畫>의 뜻으로 되어버린다. 이것은 이 네 시녀의 신분, 그리고 기호와 관계된다.

넷째, 항렬자에 따라 이름을 지었다. 《홍루몽》에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다. "當日寧榮二公在世, 一名賈演, 居長; 一名賈源, 居次" 이 세대는 <水> 돌림으로서 그들의 이름에는 반드시 <水>자가 들어가야 할뿐더러 삼수변 <水>자여야 한다. 제 2 대는 <代>자 돌림이다. 이 <代>는 반드시 중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賈代化, 賈代善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바로 그러하다. 제 3 대는 <문>자 돌림이다. 그들 이름가운데서 반드시 오른쪽 변이 <文>자여야 한다. 賈敷, 賈政, 賈敬 등 인물들의 이름이 바로 그 실례로 된다. 제 4 대는 <玉>자 돌림인데 왼쪽 변이 <玉>자로 되어야 한다. 예하면 賈珍, 賈璉, 賈瑞 등이다.

3.2. 한국인 이름

한국인 이름도 한자어 이름을 짓기에 이런 이름이 보여주는 문화적 심리는 중국인 이름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름자 선택에서 중국인 이름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국인 이름도 시대적 특성과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일제 식민지 통치의 후기에 와서는 일본 성명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름들이 많이 나타났고 문화의 타성으로 하여 일제식민지 종식 수십년 후인 오늘날까지도 이런 이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근대시기 이후로는 또 기독교문화의 전파와 함께 경건한 신도가운데는 자식의 이름을 <성경>에서 따오는 경우가 있어 옛날에는 없었던 바울이, 마리아 등 이름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한국인 가운데서 민족의식이 특별히 강하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일부 인사들은 한자 이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한국적인 이름을 선호하여 자식들에게 이쁜이, 고운이, 꽃분이, 분이, 순이, 하나, 두나, 아름, 잔디, 빛나, 말쑹, 말선, 방실이, 바다, 보라 등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

4. 맺는말

위에서 우리는 한자문화권에서의 성씨 이름 문화와 중한 인명에 반영된 문화적 심리를 살펴보았다.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첫째, 행복하게 잘 살라는 염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격려 등을 성 다음에 오는 이름에 담으려고 고민한다. 둘째, 기념적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나 시대적 특성을 이름에 담으려고 애쓴다. 셋째, 항렬자에 맞춰 음양오행을 따지고 사주까지 살펴서 이름을 지으려 한다. 넷째, 되도록 뜻이 엇갈리기 쉬운 글자를 피하며 성씨와 잘 어울리는 음색을 고른다. 다섯째, 남으로부터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이름자 선택에 신경을 쓴다.